

벌처펀드(Vulture Fund)

김찬진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벌처펀드(Vulture Fund)¹⁾란 부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정크본드(경영 악화나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신용 등급이 급격히 낮아진 기업이 신용 등급 하락 이전에 발행했던 채권으로 투자부적격 채권으로 일컬어짐)에 주로 투자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부실 기업 정리 회사) 또는 기금을 뜻한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희생할 확률은 높고 시장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기업 또는 그러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부실 기업의 인수시 벌처펀드는 인원 정리, 자산 매각, 유상 증자, 사업부 분할 및 합병을 통한 경영 합리화(자산 구조 개선)후 재매각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주 매입 부실 기업 대상은 관리종목 가운데 신기술이나 유명 브랜드 보유, 높은 시장 지배력 또는 양호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 하더라도 자본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인 인수 비용이 많아져 높지 않을 것이다.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고 흑자 부도를 내고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해놓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채를 떠안는 대신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벌처펀드는 현재까지 도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기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

1) 독수리(Vulture)가 죽은 고기를 즐겨 먹듯이 위험이 높은 데(거의 죽은 고기) 투자하는 특징을 비유한 것으로서 부실 기업 정리 회사 또는 그 자금을 뜻함.

하다는 데 인식을 하여 가능한 한 4월부터 도입할 것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벌처펀드가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담보부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의 발행도 같은 시기에 허용할 예정이다. ABS는 금융 기관²⁾이 매출 채권이나 담보 물건을 근거로 발행한 채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ABS는 매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높은 투자 수익률과 투자 위험도를 함께 가지고 있다.

벌처펀드설치법이 입법화되면 이들 벌처펀드가 기업 인수·양도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벌처펀드에 의한 구조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벌처펀드의 참여에는 외국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간 자본도 포함될 것이나 외국 자본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벌처펀드의 도입 허용은 단기적으로는

부의 유출이 우려될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다. 벌처펀드에 의한 구조조정은 시장 기능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듯이 벌처펀드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

2) 현재는 성업공사가 인수한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근거로 ABS를 발행하여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고, 향후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다른 금융 기관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